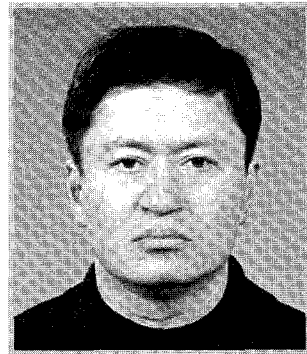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방안

항균성물질의 신중사용은 국제적 대세

- 임상수의사처방에 의한 항균성물질 사용의 합의도출을 공론화해야 -

이 인 호 농수축산신문 동물약품전담 리포터



식용동물(Food animals)에서의 임상수의사의 유효 적절한 처방에 의한 약제사용을 배제한 채, 양축가의 경험과 수의학 비전공자에 의한 자가처방을 비롯한 항균성물질의 부적절한 사용과 직결되는 오·남용을 방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항균성물질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슈퍼 세균(VRSA)이 살아남아 인체에까지도 유해수준을 넘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회피성 주장이 의료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WHO, OIE, WVA, FDA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의해 수의사처방에 의한 항균성물질의 신중사용(Prudent Uses)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미국, 일본, EU국가를 비롯한 선진 축산국가에 비해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 두수대비(對比) 항균성물질의 사용량에 있어서는 최고 선진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항균성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각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비교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수의사처방에 의한 항균성물질의 사용과 요주의약품제도의 실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자, 법령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 축산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비롯한 전문가집단의 연구결과를 통한 건의서



를 현실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내성이 심하고 인체에 잔류될 우려가 심한 항균성물질의 우선적인 감축을 통한 신중사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의 추가적인 공세가 폭풍전야의 일보직전까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순서라면 먼저 이러한 의료계와 소비자관련 단체들에게 축산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언론 공세의 단서를 근원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전문가집단을 통한 후속조치의 마련과 과학적인 대응논리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수집(Feedstuffs誌, 2003년 9월 15일)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정은 의료계와 KBS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과 중앙일보를 비롯한 4대 일간지가 축산업계에 대한 최우선 공세로 내세우고 있는 임상수의사 처방에 의한 항균성물질을 비롯한 동물용의약품의 신중사용에 대한 안만 제시될 뿐, 수의사단체와 생산자단체 간의 법적 합의를 위한 실행적인 시도와 장기비전의 제시

가 생산자단체들이 여러 가지 비과학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진전되지 못하는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항균성물질의 사용을 공론화하여 여러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자고 하면 동물약품 생산업체 및 판매협회의 비수의사 회원들의 상당수는 안 그래도 동물약품 경기가 최악이라 죽겠는데 임상수의사 처방을 실시하면 당장 현재보다도 매출이 더 떨어져 수입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자신들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거부 반응을 심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협회 내 수의사회원들은 표면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못하나, 이면에서는 득실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지라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도출에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들은 지금까지 웬만한 질병들은 임상수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양축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임상수의사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 왔는데, 임상수의사 처방에 의한 제도를 정착화하면 돌팔이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대가를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내세워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차후에 진행될 국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농림부 축산국에서 공식적인 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항생물질 대체

물질의 개발과 연구와 연구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임상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항생물질의 사용 중에서 어느 안이 더 시급히 시행되어야 국가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양계농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자고 하면, 생산자단체와 수의사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의견이 폭 넓게 제시될 수 있고, 농림부 축산국은 이러한 다양한 여론을 취사선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나타내는 바이다.

그러나, 항생물질의 대체물질의 개발은 이미 관련업계에서 농림부 축산국보다도 더 먼저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VIV, EUROTER, World Poultry Show 등)를 참가하여 미리 읽어서 현재도 여러 가지 형태의 검증 및 미 검증의 대체물질 또는 건강 증진물질이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개발 또는 수입되어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 축산국에서 할 일은 뒤늦은 안의 제시가 아니라, EU국가와 같이 항생물질 대체제에 대한 항생물질에 버금가는 법규를 제정하여 불량 대체물질의 출현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전문가들의 자문과 기술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더 합당한 조치일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 축산국의 법령제정 자들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 최대의 해결난제라고 할 수 있는 임상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항균성물질의 신중한 사용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타당하며, 관련업계에서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돌팔이에 의한 자가진

단의 그릇된 관행의 청산의 분위기에 협력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농림부 축산국에 전달되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법령제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원리원칙을 준수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 조성에 강력히 협조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금티푸스에 대한 약제감수성이 매년 저하되어서 내성율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과 같은 신퀴놀론 약제를 돌팔이들의 권유로 계속 사용해서 소비자단체들로부터 닭고기에서 엔로플록사신의 검출이라는 보도를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수모를 당해야 하겠는가 이제는 진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수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설령 수의사를 능가하는 실력을 지니고 있을 지라도 돌팔이가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수의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거리낌없이 활동하고 수의학 전문학자들도 여러 가지 정밀진단을 해야 나오는 판단을 양축가의 몇 마디 말만 듣고 즉시 진단을 내리고 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OECD국가에서는 근절되어야 할 부끄러운 행위임을 자각하고 자숙과 자중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지금은 인내력을 가지고 이익단체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에 지혜를 집결시켜야 할 시점이지, 돌팔이 집단의 청원을 계속 들어주어야 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본 제언을 마치고자 한다. **3기**